

완도군 전국 첫 귀어인 일자리 프로젝트 가동

어업권 제공 어촌계에 숙원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양식업 한정면허 발급도 건의...젊은 귀어인 유치 박차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특색을 접목한 귀어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가동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귀어 희망자에게 어업권을 제공하는 어촌계에 마을 숙원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귀어문화 확산에 나서겠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완도군은 6일 “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을 어촌계에 어업권 공유를 권유하고, 정부에 귀어인만이 양식할 수 있는 한정 면허를 내줄 것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이 마을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권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은 어업권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어촌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을어촌계의 과다한 입회비 요구와 폐쇄적인 어업 면허권 운영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젊은이의 어촌계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완도는 해조류와 전복양식 등으로 연간소득이 높아 도시지역 젊은층 귀어 희망자들 사이에 귀어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양식면허 공간 부족 등에 따른 어

업권 확보가 어려워 귀어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귀어 희망자에게 어업권(행사계약)을 제공하는 어촌계에 마을 숙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완도군은 또 어업면허 잔여면적 및 어업행사 가능면적, 빈집 현황 및 리모델링 가능 여부, 부잔교 및 인양기 시설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귀어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이와 함께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 귀어인들만 양식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귀어 정책의 장벽

을 허물기 위해서는 마을 어촌계 스스로 귀어인에게 어업권을 제공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어업권 제공에 나선 어촌계에 대해서는 다목적인양기,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등 어촌계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이동군수실 등을 활용해 귀어·귀촌분조성을 위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직접 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귀어촌 홈스테이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운영했으며, ‘도시민 어촌유치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귀어민과 토착 어업인이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부장 eichung



진도군 군민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체험

진도군은 “최근 임회면 소재 백동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산림조합, 산림법인, 임업후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숲 가꾸기 작업을 몸소 체험하는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사진)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백동 무궁화동산은 나라꽃 무궁화 선양사업으로 지난 2001년 5ha 면적에 무궁화 등 1만본의 조성했으며, 진도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을 활용, 숲가꾸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도시계획도로 연내 조기 개통

해남군은 “시내권 주요도로 중 하나인 해남읍 평동리 마을회관 앞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올 연말 조기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개통되는 도로는 총 연장 208m 구간으로, 폭이 좁고 교통소통이 불편해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던 골목길을 폭 9.8m로 확장했다.

해남군은 특히 군내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을 통해 조기 개통의 성과를 이뤄냈다.

주민추진위원회에는 불법 주차장 근절,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발생을 사전 해결하는 등 공사 추진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다.

올 3월 착공한 도로를 올 연말 개통할 예정이며,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읍 중심지가의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해소는 물론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변교~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등 관내 총 11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해남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은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금 이자 및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출금 이자지원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소매업, 숙박(생계)·음식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율 2%를 초과한 이자분에 대해 최대 3%까지, 연 200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한다.

해남군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을 위해 기존 3종의 구비서류 대

신 개인정보동의서 1종만 제출하고, 신청 정 장소도 군 지역개발과 외에도 읍·면사무소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과 공동으로 한시적 특별자금을 오는 31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에서 사업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1년 일시 상환시 연 2.4%, 5년 분할 상환시 연 2.6%, 보증료는 연 0.8%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오늘 진도 향토문화회관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한국 국악계 대표 음악인들이 ‘보배섬’ 진도에서 신명나는 한판을 벌인다.

진도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당신을 위한 노래-진도군편’이 7일 오후 5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무료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국악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기획으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진은 박애리씨를 비롯한 신예 국악인 김준수, 거문고 연주자 유영주, 사물광대와 이화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13개팀 100여명 출전...진도군 여성 게이트볼대회 성료

제10회 진도군 여성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5일 아리랑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진도군 게이트볼협회(회장 박병욱) 등이 주관하는 진도군 여성 게이트볼 대회는 관내 게이트볼 활성화와 어르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로 10년째 개최되고 있다.

여성 게이트볼 동호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총 13팀 100여명이 출전했다. 박병욱 회장은 “게이트볼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고 허리 굽히기와 이동이 많아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

진과 게이트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지역별 게이트볼 실내구장 조성과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활기찬 노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파크골프, 탁구 등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해조류박람회 웹툰 공모전 내달 18일까지 응모작 접수

완도군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를 위해 웹툰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월 18일까지로,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다.

창작 주제는 ▲해조류의 가치와 중요성 ▲해조류의 미래 산업 발전 가능성 ▲완도의 관광자 등 3가지이며, 개인 또는 3명 이

하로 팀을 구성해 10컷 이상의 웹툰으로 표현하면 된다.

대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입선작 6명(팀) 등 9명(팀)에게 총 4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홈페이지(www.wandoexp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길수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웹툰 공모전이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해조류의 이해를 높이고 박람회 분위기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11월 SNS 댓글 달기 이벤트에 이어 연말 SNS 퀴즈이벤트 등 박람회 개막 전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부장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